'1000만 찍고 로맨스 퀸 컴백'…전도연의 야망

송강호·이병헌·김남길 등과 호흡
"당연히 1000만 돌파 믿고 출연"
내년 초엔 '일타 스캔들'로 안방행
'스타강사' 정경호와 달달한 스캔들


배우 전도연이 8월 3일 개봉하는 주연영화 '비상선언'으로 흥행몰이에 도전한다. 사진제공 | 쇼박스

톱스타 전도연이 다시 한번 스크린과 안방극장에서 비상할 기세다.

한국영화의 대표적 배우로 꼽히며 국내외에서 명성을 높여온 전도연은 올해 여름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첫 번째 무대로 삼는다. 뒤이어 로맨틱 코미디로 안방극장을 찾아 '로맨스 퀸'의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 "당연히 1000만 관객 돌파!"

전도연은 8월 3일 주연작 '비상선언'을 선보이며 관객을 만난다.

영화는 제작비 300억 원 규모의 블록버스터물로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표방하는 '항공 재난물' 등 흥행을 전망케 하는 요소를 적극 내세운다. 무엇보다 송강호·이병헌·김남길·임시완 등 스타급 배우들이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췄다는 점으로도 더욱 눈길을 끈다.

그 중심에 전도연이 있다. 비행기 테러의 위협에 맞닥뜨린 채 극심한 절망과 혼돈 속에 놓인 승객들을 살려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토부 장관 역이 그의 몫이다.

2020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이후 2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오는 그는 이를 통해 20일 개봉작 '외계+인'을 비롯한 '한산: 용의 출현', '헌트' 등 올해 여름시즌 기대작과 벌일 '흥행 대전'에 나선다.

그의 기대감 역시 작지 않다. 최근 몇 년 사이 스크린 흥행작에 목말랐던 그는 6월 말 '비상선언' 제작보고회를 열고 송강호·이병헌·김남길 등을 언급하며 "(이들 가운데 내가)흥행에 가장 큰 아쉬움이 있다. 기대 100%"라며 관객의 관심을 바랐다. 이는 자신감으로 이어져 "당연히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영화라 믿고 출연했다"고 덧붙였다.

● '칸의 여왕'? 다시 '로맨스 퀸'으로

전도연은 2007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으로 한국배우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칸의 여왕'이라는 수식을 얻었다. 하지만 그 이전 '편지' '약속'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 등 멜로를 기반으로 한 영화를 통해 감성 연기를 선보이며 '눈물의 여왕'이라 불렸다. 사실 '밀양'에서도 무참하게 아이를 잃은 어미의 고통을 가슴 치는 통곡의 장면으로 표현해 칸의 영예를 안았다.

동시에 안방극장 '로맨스 퀸'으로도 자리를 굳건히 했다. 드라마 '별을 쏘다' '프라하의 연인'이 그의 대표적인 드라마 주연작으로 꼽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전도연은 자신이 쌓아온 이 같은 이미지를 다시 한번 펼쳐낼 전망이다. 내년 초 방송 예정인 tvN 드라마 '일타 스캔들'을 통해서다. 극중 입시지옥에 뒤늦게 뛰어든 반찬가게 열혈 사장 역을 맡아 최고의 스타 강사를 뜻하는 '일타강사' 정경호와 호흡을 맞춘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돌아온 '환승연애'…'과몰입 유발 콘텐츠' 다시 증명할까?

1·2화 공개 후 사진·후기 쏟아져
시즌 1보다 시청 순방문자수 7배↑
"더 깊은 감정라인…몰입 도울 것"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환승연애2'의 연출자 이진주 PD와 방송인 이용진, 배우 유라, 가수 사이먼 도미닉, 배우 김예원(왼쪽부터)이 20일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 무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티빙

"리얼함 그 자체"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환승연애'가 돌아왔다. 최근 새롭게 내놓은 시즌2를 통해 지난해 방송가에 연애 예능 돌풍을 이끌고 온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할 태세다. 콘텐츠는 이미 결별한 네 쌍의 커플들이 한 집에 모여 새로운 러브라인을 그리는 내용이다. 전 연인과 새로운 '썸남' 혹은 '썸녀' 사이에서 고민하는 젊은 남녀들의 심리가 생생하게 펼쳐지면서 '과몰입 유발' 콘텐츠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다.

15일 1·2화를 공개하며 벌써 화제몰이를 시작했다. 온라인에는 8명의 비연예인 출연자들의 SNS 계정과 사진들이 나돌고, 이들이 그릴 러브라인을 추측하는 시청 후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티빙에 따르면 시즌1 대비 시청 UV(순방문자수)가 7배 가까이 증폭했고, 16~17일 유료가입기여자수 1위에 올랐다.

가수 사이먼도미닉(쌈디), 방송인 이용진, 배우 김예원, 배우 겸 가수 유라 등 진행자들은 20일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우리들의 '인생 예능 콘텐츠'"라며 "이번에도 시즌1 못지않게 재미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쌈디는 "살아있는 리얼리티"가 '환승연애'만의 강점이라며 "수많은 연애 소재 예능 콘텐츠 사이에서도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커플들의 사연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지면서 보는 사람마저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김예원도 "'웰메이드'라는 표현이 딱 맞을 만큼 자극적인 설정 없이 감정을 건드리는 콘텐츠"라고 강조했다.

8명의 출연자가 그리는 러브라인을 추리하는 재미도 더욱 살렸다. 연출자 이진주 PD는 "시즌1보다 감정을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순간들을 자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추가했다"면서 "초반부에는 8명의 출연자 중 누가 누구의 전 연인이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 이들의 관계를 추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더욱 부각했다"고 말했다.

이용진은 "시청자의 몰입을 돕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며 "친구들과 연애 상담하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내가 직접 겪은 연애 이야기들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유라는 "동료 연예인들로부터 '누가 커플이 돼?'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으면서 뜨거운 인기를 체감하고 있다"면서 "시즌1로 터득한 '감'을 활용해 새 시즌에 새로운 재미를 불어 넣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로맨스로 날개 단 강태오·진영·이재욱

'우영우' 강태오 넷플릭스 화제성 1위
'유미의…' 진영, 2030세대 공감 견인
'환혼' 이재욱, 스승과 사랑 인기 톡톡


강태오 진영 이재욱

배우 강태오(28), 진영(28), 이재욱(24)이 로맨스의 달콤한 매력을 앞세워 안방극장의 새로운 '청춘스타'로 떠오를 태세다. 이들은 각각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유미의 세포들2', tvN '환혼'에서 핑크빛 로맨스를 이끌면서 국내를 넘어 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강태오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로펌회사 송무팀 직원 이준호 역을 맡았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박은빈)와 핑크빛 기류를 형성해 인기를 높이고 있다. 덕분에 화제성조사회사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표한 7월 2주차(11~17일)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톱10'에서는 박은빈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드라마가 20일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비영어권 1위에도 오르는 등 세계 흥행에 성공하면서 해외 팬덤도 빠르게 키우고 있다.

진영은 '유미의 세포들' 시즌2를 통해 직장인들의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를 그리면서 20~30대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평범한 회사원 김유미(김고은)와 '장거리연애' 중인 직장동료 유바비 캐릭터로 연인간의 이별과 재회 과정을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앞서 '악마판사' 등 판타지 소재를 주로 소화해 온 그는 로맨틱코미디 장르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됐다.

이재욱은 판타지 세계인 대호국을 배경삼은 '환혼'에서 부잣집 도련님 역할을 맡아 요술을 부리는 '술사'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17일 방송부터 스승 정소민과의 로맨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5%대(닐슨코리아)에 머물던 시청률을 7%까지 끌어올렸다. 해외에서는 20일 넷플릭스 세계 많이 본 TV드라마 7위(플릭스패트롤)에 오를 만큼 인기가 높지만, 국내에서는 판타지 드라마가 아직 대중적이지 않은 탓에 크게 주목받지 못해왔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의 러브스토리를 추가해 설렘을 자극하면서 시청률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

연예뉴스 HOT 5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논란에 전속계약 해지


김가람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이 학교폭력(학폭) 시비에 휘말린 끝에 소속사 하이브·쏘스뮤직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20일 쏘스뮤직은 "김가람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며 "르세라핌은 앞으로 5인 체제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김가람은 5월 2일 데뷔 직전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쏘스뮤직은 학폭 가해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 측이 반박자료를 공개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김가람의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탑건:매버릭' 올 개봉 외화 중 최고흥행작


탑건:매버릭

영화 '탑건: 매버릭'이 올해 국내에서 개봉한 외국영화 가운데 최고 흥행작이 됐다. 20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탑건: 매버릭'은 전날 10만여 명의 관객을 모아 누적 관객수 529만 7000여명을 넘겼다. 이로써 5월 개봉해 588만 명의 관객을 모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제치고 올해 외화 흥행 1위에 올랐다. 영화는 1986년 개봉한 '탑건'의 후속작으로, 최고의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 매버릭(톰 크루즈)이 파일럿학교 교관으로 부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BTS' 제이홉 솔로앨범, 日 오리콘 1차트 1위


제이홉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이 솔로 앨범 '잭 인더 박스'(Jack In The Box)로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했다. 20일 오리콘이 발표한 최신 차트(25일자)에 따르면 제이홉이 15일 발표한 '잭 인더 박스'는 주간 다운로드수 2439건을 기록하며 '주간 디지털 앨범 랭킹' 1위로 진입했다. 앨범은 앞서 세계 49개 국가 및 지역의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에도 올랐다. 1일 선공개한 더블 타이틀곡 '모어'(MORE)로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82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1일(한국시간) 미국 대형 음악 페스티벌 '롤라팔루자' 메인 스테이지 헤드라이너로 참석하며 해외 활동을 이어간다.

강다니엘, '스우파' 성별 갈등 논란 발언 사과

가수 강다니엘이 엠넷 댄스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20일 강다니엘은 SNS를 통해 "프라이빗 메시지 플랫폼에서 '긴장되고 떨렸다'는 본의를 지나치게 과장되게 표현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성별 갈등을 조장하거나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려는 상황에서도 대응 방식이 경솔했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전날 유료 소통 플랫폼인 유니버스에서 '스우파'의 후속작인 '스트릿 맨 파이터'를 진행하게 된 소감으로 "남자들이라 너무 편하다. 기 안 빨린다. (스우파는)되게 무서웠다"고 말했다. 일부 팬이 성별 비교 발언이라며 지적하자 "차단"이라고 대응해 일각에서 논란이 됐다.

이무진, 히트곡 '신호등' 표절 의혹 부인

가수 이무진이 히트곡 '신호등'의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20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신호등'은 이무진이 직접 겪은 감정을 토대로 만들어진 창작물이며 전체적인 곡의 구성과 멜로디, 코드 진행 등을 분석한 결과 유사 의혹이 제기된 곡과는 무관함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누리꾼은 이무진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신호등'이 일본 가수 세카이노 오와리가 2015년 발매한 '드래곤 나이트'와 유사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